

# ‘담양 초록에 물들다’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 개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 선보여… 체류형 축제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아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라는 주제 아래, 낮과 밤을 아우르며 머무는 즐거움이 가득한 체류형 축제로 꾸며졌다.

개막식은 5월 2일 오후 5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이찬원, 지창민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축제의 주요 무대는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으로, 개막식과 공연을 인근 향토음식관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지역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축제장 전역에는 담양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먹거리 부스, 담양 농특산물 판매관, 디지털 판매존, 전시 및 홍보 부스 등 총 15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먹거리 부스에서는 일회용 용기 대신 세척 및 소독을 거친 대화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즐

기고, 하루 더 머물며 축제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료를 환급형 상품권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죽녹원은 축제 기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무료 개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대나무 양상불 음악회와 한국국악협회 전통국악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의 별미부터 흥겨운 공연, 다채로운 체험까지 대나무와 함께하는 낭만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라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깃든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 나주시, 환경정화활동 곳곳에서 눈길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거리 경관 조성

나주시 빚가람동, 다시면 주민들이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거리 경관을 조성했다.

빚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덕연)는 최근 지사협 위원, 동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빚가람동 청사와 주변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투기한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황덕연 지사협 위원장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 동참해준 지사협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시면에서는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회장 정금만) 주도로 환경 정화 활동이 펼쳐졌다.

“깨끗한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펼쳐진 이날 환경 정화엔 협의회 회원과 면 직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도36호선 도로변과 폐주유소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정금만 회장은 “앞으로도 다시면의 청결한 환경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가겠다”며 “지역 단체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7일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36개월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과 같은 금액을 전라남도과 화순군이 적립하여 만기 시 총적립금 720만 원과 이자

## 화순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 대상

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32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이후~ 2007.12.31. 이전 출생자)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자,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자산 형성 관련 유사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형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진도군이 공용차량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군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 153대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차 등 진도군의 모든 공용차량이며,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 진도군, 공용차량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 선제적 설치

차량 화재 발생 시 초동 진압해 ‘군민 안전 확보’ 최우선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설치했다.

또한 최근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도군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는 필수적”이라며, “이런 조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등

시에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차량 화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오재영 기자

## 함평군 함평읍, 지역특화사업 ‘오늘, 마음을 담다’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함평군은 17일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날 올해 첫 지역특화사업인 ‘오늘, 마음을 담다’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돌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늘, 마음을 담다’는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기획된 올해 첫 지역특화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반찬과 과일 등을 제공해 식생활 개선과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고추장, 봄나물 반찬 2종, 쌀밥으로 구성된 ‘봄맞이 나물 비빔밥’을 마련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위원들이 직접 손수 만든 고춧가루, 메주가루 등 재료를 준비해 고추장을 담고, 당일 아침 신선한 봄나물과 쌀밥을 정성껏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김행구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행복과 건강을 담은 봄맞이 나물 비빔밥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의 건강을 고려해 다양한 건강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지역특화사업의 첫 시작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올 한해도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와 협력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 광양시 민생안정 소비촉진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지역경제 회복 위해 민·관·기업 한자리에… 지속 협력 방안 모색

광양시는 지난 4월 16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에서 민생안정 소비촉진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생안정 소비촉진협의체’는 계엄 및 탄핵 정국 전후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광양상공회의소 ▲포스코광양제철소 ▲광양제철소파트너사회회 ▲포스코 노동조합 ▲산업단지별 협의회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상공인회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 ▲(사)광양YWCA 등 지역 내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한 소비 촉진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및 소비 진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지난 2월에 열린 1차 회의 이후, 분야별로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광양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이벤트 추진 ▲전통시장 고객 감사 행사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배 손실 보전 지원금 지급 ▲배 재배농가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지원 등 5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민간과 기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광양사랑상품권 1천만 원을 구매하고, 소상공인·경제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우수 파트장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